



2면

세계한인비즈 수출상담회서 '큰 실적'

전주매일

www.jjmaeil.com

2024년 10월 24일 목요일 (음 9월 22일) 제3609호

대표전화 (063)288-9700

비수술적 척추관절 류종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글로벌 금융 리더들, 전북서 미래 논하다

제5회 지니포럼(GENIE Forum) 개막

최신 금융 트렌드 공유·'금융도시 전북' 방향 제시
세계한인비즈 VC 포럼과 연계 시너지 효과 극대화

전북특별자치도(도지사 김관영)가 글로벌 금융 리더들과 함께 지속 가능한 금융혁신과 성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한 제5회 지니포럼(GENIE Forum)이 23일 전북대학교 진수당에서 성대하게 막이 올랐다. 지니포럼(GENIE Forum)은 전북자치도와 전주시(시장 우범기), 국민연금공단(이사장 김태현) 3개 기관이 협력하여 글로벌 금융·경제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개최하는 행사로서 올해로 5회째를 맞이했다.

올해는 '글로벌 금융 네트워크 중심을 향한 움직임(Beyond Local, Movement for the Global)'을 주제로 메인행사(개막식, 전북국제금융컨퍼런스(VC 포럼, 금융포럼))와 연계행사(금융도크 콘서트 등)로 구성됐다. 개막식에서는 국내외 금융 전문가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김관영 도지사가 개회사를 통해 전북자치도가 자산운용 중심 금융도시로 도약할 비전을 제시하며 행사의 시작을 알렸다.

이어 공동 개최기관인 우범기 전주시장과 국민연금공단 김태현 이사장의 환영사가 진행되었으며, 김병환 금융위원장, 이성운·조배숙 국회의원 등이 영상으로 축하의 메시지를 전했다.

특히, 개막식의 주요 행사 중 하나인 '지니 어워즈(Genie Awards)' 시상식에서는 한국산업은행 강석훈 회장이 지역 스타트업과 신산업 육성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관련기사 14면>

오후에 이어진 전북국제금융컨퍼런스(JIFIC)에서는 'VC포럼(세션1)'과 '금융포럼(세션2)'을 진행해 글로벌 금융·경제 최신 이슈에 대한 통찰을 공유하고 국내외 전문가들이 모여 심도있는 논의를 펼쳤다.

재외동포청과 공동으로 개최한 VC포럼에서는 국내외 벤처캐피탈(VC) 전문가들이 참여해 국내 스타트업의 해외진출과 투자유치 전략을 논의했다. 켄 킴(Ken Kim, Asia2G Capital 공동창업자)은 실리콘밸리 사례를 바탕으로 글로벌 시장 진출 전략을 공유했다.

미국 실리콘밸리에 본사를 둔 플러그 앤 플레이(Plug and Play)의 라샤드 쿠퍼(Rashaad Cooper) 파트너는 그간 1천개 이상의 스타트업에 투자한 경험을 바탕으로 해외투자 성공을 위한 금융 네트워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어진 패널 토론에서도 다양한 성공 사례와 함께 해외 진출 과정에서 직면하는 어려움에 대한 실질적인 조언이 이뤄졌다. 두 번째 세션은 글로벌 자본시장에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와 문승우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장, 우범기 전주시장, 양오봉 전북대학교 총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23일 전북대 진수당에서 열린 '제5회 지니포럼 개막식'에 참석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서 ESG 금융의 중요성을 조명하는 자리로, 금융 전문가들이 모여 탄소중립과 자산운용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가 펼쳐졌다.

특히, 기조강연을 맡은 제스카 앤드류(UNEP FI, 책임부서장)는 전 세계 기관투자자들이 추구하는 넷제로(NetZero) 투자 트렌드와 리더십의 중요성을 언급하며, 지속 가능한 금융이 미래 경제에서 차지할 비중과 금융기관이 수행할 역할을 강조했다. 이어진 패널 토론에서는 덕성여대

김이배 교수가 좌장을 맡아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탄소중립과 자산운용 전략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졌다. 랜스 우글라(제너럴 애틀랜틱 부회장), 이사라(네덜란드 연금자산운용 APG 이사), 팀 찬(모건스탠리 연구책임자) 등 다양한 전문가들이 패널로 참여해 각국의 전략과 경험을 공유했다.

특히 연금의 ESG 투자 과정에서 지역과의 상생방안 등을 제안해 전북자치도가 나아갈 방향을 제시했다.

무엇보다도, 포럼의 참가자들은 전북특별자치도가 글로벌 금융 허브로서의 성장 가능성을 확인하고, 포럼의 성공적인 개최를 높이 평가했다.

김관영 도지사는 "글로벌 자산운용 금융도시로 힘찬 도약을 준비하고 있는 전북특별자치도에서 글로벌 금융 리더들과 함께 미래 금융 의제를 논의하게 돼 기쁘다"며, "지역이 함께 성장하는 대한민국 대표 국제 금융·경제포럼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만호 기자

전북교육청, 교육감 공약관리위원회 공모

전원 외부위원으로 구성
29일까지... 19세 이상 도민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제19대 교육감 공약관리위원회 위원을 공개모집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는 공약이행 과정에 도민 참여를 확대해 더 많은 의견 수렴과 소통으로 공약이행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공약사항에 대한 책임행정을 실현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전북교육청은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공약사항 관리 규칙'을 개정해 위원회 구성을 변경했으며, 이번 공개모집을 통해 전원 외부위원으로 구성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르면 기존 외부위원은 그 직을 유지하고, 위원 정원 30명에 대한 추가 8명과 사퇴한 2명을 포함해 총 10명을 추가로 모집할 예정이다.

지역·성별 등을 고려한 무작위 추첨을 통해 11월 8일 선정 결과를 발표하며, 임기는 공개모집 당시 교육감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신청은 공고일 현재 도내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둔 19세 이상의 도민이면 할 수 있다.

희망하는 사람은 오는 29일까지 신청서를 작성해 전북교육청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 신청하거나 우편 또는 방문 접수하면 된다.

채선영 정책기획과장은 "전북교육청은 교육감 공약사항의 체계적 관리 및 이행을 위해 공약관리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면서 "교육정책에 관심있고 역량있는 도민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장은성 기자

국내 유일 탄소산업 전시회 '판파르'

'카본 코리아 2024' 25일까지... 탄소소재 최신 기술 전시

전북특별자치도는 국내 유일의 탄소융합산업 전시회인 '카본 코리아(Carbon Korea) 2024'가 23일부터 25일까지 서울 aT센터에서 열린다고 밝혔다.

올해로 4회째를 맞이하는 이번 행사는 '내일을 위한 탄소소재 혁신'을 주제로, 탄소소재와 중간재, 응용부품 등 탄소산업 전반의 최신 기술 동향을 공유하는 자리다.

이번 전시회는 산업통상자원부가 주최하고, 한국탄소산업진흥원과 한국탄소노산업협회가 주관하며, 전

북자치도와 경북도가 공동으로 참여해 국내외 탄소 산업을 이끌어 갈 주요 기업들이 대거 참가할 예정이다. '카본 코리아(Carbon Korea) 2024'는 △탄소융합산업 전시회 △국제 컨퍼런스 △해외 바이어-국내 기업 간 매칭 프로그램 △무역 유관기관 연

계 수출지원 컨설팅 등 4개의 주요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참가 기업들에게 다양한 기회를 제공한다. 이번 전시회에는 독일, 중국 등 글로벌 기업을 포함한 100여 개의 기업과 기관이 참여해, 개별전시관, 수요산업관, 국제관, 전북·경북관, 탄소



제철관 등 6개 부스에서 최신 기술과 제품을 선보일 예정이다. 수요산업관에서는 항공우주, 모빌

리티, 에너지·환경, 의료기기 등 주요 산업 분야의 국내 기업들이 개발한 제품을 전시하고, 국제관에서는 독일과 중국 등 기술 선도국가들의 첨단 제품을 소개한다.

특히, 전북자치도는 HS효성첨단소재, 하이즈 복합재산업 등 도내 14개 기업이 참가해 초고강도 탄소섬유와 탄소소재 수소드론 하우징 등 다양한 제품을 선보이며, 글로벌 시장에 대한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국제 컨퍼런스에서는 모빌리티, 에너지·환경, 탄소중립 분야의 국내외

전문가 20명이 최신 기술 동향과 미래 전망을 발표할 예정이다. 또한, 해외 바이어와 국내 기업 간 매칭 프로그램을 통해 수출 판로를 개척하고, 코트라(KOTRA) 등 무역 유관기관의 연계를 통해 수출 지원 컨설팅이 제공된다.

최재길 도 차차전지탄소산업과장은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된 전주 탄소소재 국가산단이 올해 말 분양을 시작해, 탄소산업을 선도하는 기업들에게 다양한 혜택과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만호 기자



현장에서 배우고,
현장에서 해법을 찾는
현장중심의 의정을 펼치겠습니다.

고창군의회

